

계열에 따른 여자고등학생의 성에 관한 실태분석

박 옥 임 · 신 혜 숙

순천대학교 소비자 가족아동학과 · 고흥여자중학교

Empirical Analysis of Sexuality among Girls' High School Students by Course

Park, Ok Im · Sin, Hye Suk

Dept. of Consumer and Family - 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Goheung Girl's Middle School, Goheung,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various types of consciousness about sexuality exhibited by girls' high school students.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utilizing two subject groups with the first being academic course students and the second being vocational course students. A 51 question questionnaire was prepared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previous research.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two preliminary surveys, a reliability test, and a correction. A total of 721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students of 3 vocational and 3 academic courses. The analysis of the results was carried out using by means of SPSS 10.0. The study generated conclusive findings about each groups' viewpoint toward sex, the actual condition of their relationship with members of the opposite sex, the passages of knowledge about sex, the content of current sexuality education at school and the ideal type of sexuality educa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standardized content of sexuality education is ineffective. Sexuality education at schools in South Korea has reached a point, where research for more effective sexuality education is required.

Key words: academic course, vocational course, sexuality, girl's high school

I. 서 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변화와 성적 호기심, 논리의 비약과 부정의 심리, 그리고 관념세계에서의 고민, 우정만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에 관한 교육이나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

황에서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상에서 쏟아지는 각종 유해한 정보들이 성에 대한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곳이 주로 또래집단과 대중매체나 음란물일 수 있다는 유추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정작 학부모, 교사,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오

히려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문희 2001). 이처럼 무차별한 성 정보의 범람은 청소년들에게 끊임없는 성적 자극을 주게 되어 성에 관한 호기심과 충동을 증폭시키면서 성적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데 혼란을 겪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성장, 변화해 가는 자신의 신체와 그에 따른 의문이나 불안을 해결할 만한 정확한 지식이나 적절한 조언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지식과 정보를 습득한 다수의 청소년들은 성적 탈선 및 성범죄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영향은 보다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도 확대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성 정보의 범람으로 위험에 빠져들 용이한 환경 - 원치 않는 임신, 인공유산, 미혼모의 양산, 성폭력의 증가, 청소년 매춘문제 등 -이 조성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성적 인 활동이 전보다 더 활발해지는 추세에 있어, 서구 등 여러 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회문제화된 10대 여고생들의 임신이나 출산 등 청소년의 성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윤가현 2000).

그러나 청소년을 가장 긴밀하게 교육·지도하는 우리나라의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직면한 대학 입시와 교과운영상의 문제, 관리자의 성교육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견해와 제도적인 지원 부족 등 여러 가지 학교 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성교육을 올바르게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왜곡된 성인식을 낳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는(조한혜정 1998) 지적도 있다. 또한 성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지도에 불과해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현실과 괴리된 원론적인 교육으로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렇게 교육 현장에서 학교 성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대한 일선 교단의 관심 부족과 청소년들의 성 의식과 행동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을 금기시하고 그들의 성적 욕구를 억압하려고만 하는

성교육 내용과 올바른 성교육을 담당해야 할 교사들의 절대적인 부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최근 청소년의 성교육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고등학생을 위한 성교육 교재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교육인적자원부 2001)은 환영할 만 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교육은 남성중심적 성에 관한 이중규범으로 성별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으며(장필화 1999) 이중적 성체계(황은자 1993)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교육 지침서 또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성' 등을 교육할 것을 약속하지만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공헌해 왔다(김현미 1997)고 지적하면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남성중심적인 이중규범과 가부장적 질서에서 배제된 여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계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생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성 의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일조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정체성형성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성 의식(sexuality)

성 의식이란 인간이 알고 있는 성에 대한 지식과 생각을 말하며 성에 대한 의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의식이 어떠한 성질의 의식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성차연구는 그 접근방법에 따라 생물학적 연구, 심리학적 연구, 인류학적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사실 나누어지기 보다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서 학제적 연구로 진행되어야 성차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성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인식해야 할 것은 남성과 여성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을 훨씬 더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 생리를 총체적으로 볼 때, 성차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차

는 남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이다. 그렇다면 성차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속해 있는 전체와의 균형 감각이 없는 실제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극히 적은 차이에다가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장(윤)필화 1999).

서구 페미니스트들은 성을 sex, gender, sexuality로 구분해서 개념화해 왔는데, sex는 생물학적인 성이라면 gender는 남성과 여성간의 사회문화적 구분과 관련된 개념이고, sexuality는 성적인 중요성을 갖는 개인적 사회적 삶의 측면들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이명선 1997).

이 연구에서는 sexuality라는 용어를 성 의식이라 하여 성에 대한 지식이나 태도, 감정, 이론,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지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 현장에서 학교교육활동의 중핵을 이루는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대학진학이라는 목표를 두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국가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 육성을 담당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고등학생의 40%를 차지하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면서 학력중심사고방식에서 야기된 열등감과(오영재 등 2002) 사회적 관심의 대상에서 소외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들조차도 실업계 고등학교가 꿈과 희망을 준비하는 배움터라기보다는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확산되어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학교, 학부모,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입시위주 교육 대열에서 진학이라는 목표가 분명하지만 대학입시의 중압감에 억눌려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과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러한 대열에서 소외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계열에 따라 그들의 성 의식 형성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이성교제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정서적인 변화 등으로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성인으로 대우받기를 원하고, 또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성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며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가 높다. 일반적으로 사춘기에 진입하게 되면 이성에 대한 욕망이 강렬하여 때로는 적극적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행동화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성적 정체성을 정립하며 배우자 탐색 및 결정의 예비과정으로서 이성교제 자체가 단순히 즐거움을 제공해주기도 하며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데에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들의 이성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시작되어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호기심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출되며 구체적인 실행과 성적 충동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그리하여, 청소년기에 이성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이성교제가 성적인 욕구충족과 욕구충족의 대상 및 해결로서 중요하게 생각되거나 때로는 실행으로 이어져 청소년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성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대화의 비중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자위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잘못된 경우에는 성 비행 및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이성교제를 통하여 서로가 친밀감을 느끼게 되며, 그에 따른 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 문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건전하고 올바른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청소년들을 위한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새로운 모형의 제시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고 하겠다.

청소년생활통계 연보(2003)에 따르면 친하게 지내는 특별히 지내는 이성친구가 있는 사람은 33.6%로 나타났는데, 인문계고등학생은 27.8%, 실업계고등학생은 43.8%로 나타났다.

3. 음란물 접촉과 성지식 통로

청소년생활통계연보(2003)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75.6%가 음란도서나 비디오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가운데 인문계 고등학생 71.8%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 82.7%학생이 음란물을 본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나 비디오를 본 경험도 53.4%의 학생이 경험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실업계 고등학교(47.4%)보다 인문계 고등학생이 56.6%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도서나 비디오를 본 횟수를 보면, 33.6%가 여러번 본 경험이 있으며, 그에 대한 의견은 계열에 따라 인문계고등학생은 62.4%, 실업계고등학생은 55.9%가 음란도서나 비디오를 보는 것에 대하여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본 경험은 87.0%로 나타났는데 인문계고등학생은 85.1%, 실업계고등학생은 90.5%로 나타났다. 이성희·한은주(1998)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지식을 얻는 통로의 대부분이 또래집단(66.9%), 학교(57.5%)를 통해서 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를 통해서 18.4%로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익산성폭력상담소(2000)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익산지역 청소년의 '음란대중매체의 접촉'의 경험은 있다가 70.9%, 없다가 29.1%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왜곡된 성에 대한 정보로 인하여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잘못인식하고 있어서, 음란물 바로보기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지식의 경로 및 내용을 보면 성지식을 36.8%가 학교에서, 35.8%가 친구로부터, 13.4%가 성인잡지 등의 음란매체물, 기타 10.7%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성교육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주나 반면 또래집단이나 성인잡지 등의 음란매체물, 개인적 지식 습득의 비율도 높아 왜곡된 성지식 습득에 대한 대처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4. 성교육 내용의 차이

청소년생활통계연보(2003)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남녀의 생식기

(83.3%), 월경(85.5%), 임신/출산(80.2%)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비교적 많았으나, 좀더 실제적인 피임방법(56.5%), 낙태(60.3%), 성병/위생(57.3%)에 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성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고등학생의 30.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이성희와 한은주(1998)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의 경우 가정과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스럽다(학교 성교육: 37.5%, 가정 성교육 31.0%), 보다 불만족스럽다(학교 성교육 60.2%, 가정 성교육, 61.4%)고 응답한 경우가 훨씬 많아 고등학생들이 높은 성교육 내용에 대해 불만족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문제

1. 계열에 따라 여자고등학생들의 성 의식의 차이를 파악한다.
2. 계열에 따라 여자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 실태의 차이를 파악한다.
3. 계열에 따라 여자고등학생들의 음란물접촉과 성지식통로의 차이를 파악한다.
4. 계열에 따라 여자고등학생들의 성교육 내용의 차이를 파악한다.

IV.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측정 도구는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설문지 문항은 선행연구(정혜순, 2000; 이채희, 1999)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설문지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문항, 성에 대한 의식 11문항, 이성교제 실태 5문항, 학교성교육실태 11문항, 음란물 접촉 및 성 지식 통로 4문항, 성교육 요구도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계열에 따른 조사대상은 전라남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지역으로 순천시 인문계 1개교, 실

업계 1개교, 농촌지역으로 보성군 실업계 2개교, 인문계 1개교, 장흥군 인문계 1개교 등 고등학교 6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8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인문계 3개교 440명, 실업계 3개교 290명 총730부였으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9부를 제외하고 분석자료는 721부를 사용하였다.

3. 조사 시기

2001년 6월 12일부터 15일 까지 4일 간에 걸쳐 1차 예비조사를 한 후,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한 6월 18일부터 23일 까지 7일간에 걸쳐, 2차 예비조사를 각각 30부를 실시하여 Cronbach's α 값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모든 변수가 .70을 넘었다. 본 조사는 7월 5일부터 21일 까지 17일간 실시하였다.

4.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총 721부를 실시하였다. SPSS 10.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일

반적인 특성은 단순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산출하였으며, 계열에 따른 성 의식의 차이, 이성교제 실태, 성 지식을 얻는 통로는 χ^2 검정으로 산출하였으며, 계열에 따른 성교육 요구도 조사는 t-test를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서와 같이, 실업계열 281명(39.0%), 인문계열 440명(61.0%)로 나타나, 인문계 여학생이 실업계 여학생보다 1.5배 더 많았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04명(14.4%), 2학년 282명(39.2%), 3학년 333명(46.3%)으로 3학년 여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학년, 1학년 순서로 나타났다. 성적은 상위권132명(18.3%), 중위권 403명(55.9%), 하위권 177명(24.5%)으로 응답하여 중위권이 가장 많았고 하위권, 상위권 순서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 of variables

Items	Class	Frequency	%
Group	Vocational Course	281	39.0
	Academic Course	440	61.0
Results	High	132	18.3
	Middle	403	55.9
	Low	177	24.5
	No Answer	9	1.2
Father's Career	Under Primary School	108	15.0
	Under Middle School	170	23.6
	Under High School	300	41.6
	Above College	123	17.1
	No Answer	20	2.7
Mother's Career	Under Primary School	155	21.5
	Under Middle School	198	27.5
	Under High School	301	41.7
	Above College	47	6.5
	No Answer	20	2.8
Family Level	High	138	19.2
	Middle	429	59.5
	Low	150	20.8
	No Answer	4	.3
Religion	Christian	265	36.8
	Catholic	44	6.1
	Buddhism	97	13.5
	None	310	43.0

력은 초등학교졸업 이하가 108명(15.0%), 중학교 졸업이하 170(23.6%),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0(41.6%), 전문대졸업이상 123명(17.1%),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초등학교졸업 이하 155명(21.5%), 중학교 졸업 이하 198명(27.5%), 고등학교졸업이하 301명(41.7%), 전문대학졸업이상 47명(6.5%)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신의 가정수준은 상류 138명(19.2%), 중류 429명(59.5%), 하류 150명(20.8%)으로 응답하여 중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류, 상류 순서로 응답하였다. 여학생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과반수이상의 여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기독교 265명(36.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불교97명(13.5%), 천주교 44명(6.1%)으로 나타났으며, 무종교 및 기타 310명(43.0%)으로 나타났다.

2. 계열에 따른 성 의식

학교 계열에 의한 성 의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2에서와 같이, 여학생들의 성 경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실업계 학생 46.7%와 인문계 53.8 %가 '절대로 좋지 않다'와 '좋지 않다'에 응답을 하였고, 실업계 6.8 % 와 인문계 11.6%가 '조금은 경험할 필요가 있다'에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라는 문항에 실업계 35.6%와 인문계 23.9%가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고생의 51%만 여학생의 성 경험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고 나머지 28.5%가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잘 모르겠다'에 10.8% 응답하여 성 경험에 대해 확고한 의식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확고한 성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남학생들의 성 경험에 대하여 여자고등학생들의 성의식의 질문에 '절대로 좋지 않다' 가 실업

Table 2. The difference of consciousness about sexuality by course

Items	Total N	Class	Vocational Course		Academic Course		Total %	x ²
			N	%	N	%		
Opinion for girl's sex experience	720	Absolutely no good	44	15.7	100	22.8	20.0	x ² =18.1 df=4 .003**
		No good	87	31.0	136	31.0	31.0	
		So so	100	35.6	105	23.9	28.5	
		Need experience a little	19	6.8	51	11.6	9.7	
		Unaware	31	10.9	47	10.7	10.8	
Opinion for boy's sex experience	718	Absolutely no good	46	16.5	117	26.7	22.7	x ² =14.1 df=4 .015**
		No good	101	36.2	132	30.1	32.5	
		So so	83	29.7	106	24.1	26.3	
		Need experience a little	20	7.2	40	9.1	8.4	
		Unaware	28	10.4	44	10.0	10.1	
Worrying point for sexual intercourse	710	Pregnancy	222	80.7	303	69.7	73.9	x ² =20.0 df=5 .001**
		Parent recognition	12	4.4	56	12.9	9.6	
		No concern	6	2.2	10	2.3	2.3	
		No responsible of partner	10	3.6	14	3.2	3.4	
		Influencing future marriage	21	7.6	33	7.6	7.6	
		Others	4	1.5	19	4.4	3.2	
Choice basis of spouse	721	Occupation	77	27.4	102	23.2	24.8	x ² =29.4 df=6 .000***
		Education	4	1.4	10	2.3	1.9	
		Appearance	11	3.9	41	9.3	7.2	
		Health	55	19.6	70	15.9	17.3	
		Love	70	24.9	161	36.6	32.0	
		Economic strength	64	22.8	56	12.7	16.6	

*p< .05 , **p< .01 , ***p< .001

계 16.5%, 인문계 26.7%, ‘좋지 않다’가 실업계는 36.2% 인문계 30.1% 응답하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실업계 29.7%, 인문계 24.1%, ‘조금은 경험할 필요가 있다’가 실업계 7.2%, 인문계 9.1%, ‘잘 모르겠다’가 실업계 10.4%, 인문계 10.0%로 응답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응답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인 문항에 55.2%와 긍정과 가치중립적인 문항에 34.7%가 응답하였다. 이는 여학생들과 6.2%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 경험에 더 부정적인 답을 하였다. 이는 이채희(199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배우자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배우자의 직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응답은 실업계 27.4%, 인문계 23.2%, 학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응답은 실업계 1.4%, 인문계 2.3%, 용모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응답은 실업계 3.9%, 인문계 9.3%, 건강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응답은 실업계 19.6%, 인문계 15.9%, 애정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응답은 실업계 24.9%, 인문계 36.4%, 가문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응답은 실업계.0%, 인문계 .2%, 경제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응답은 실업계 22.8%, 인문계 12.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정, 직업, 건강, 경제력, 용모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 여학생

들은 배우자 선택 기준에 직업, 건강, 경제력 순서로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인문계 여학생들은 학력, 용모, 애정순서로 응답하여, 배우자 선택 기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여학생들이 가정의 경제 사정이나 대학 진학대열에서 탈락한 현실에서 대학진학보다는 취업 쪽으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볼 때 실업계 여학생들의 배우자 선택기준이 인문계 여학생들보다 보다 더 현실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3. 계열에 따른 이성교제 실태

학교 계열에 따른 이성교제 실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3과 같이, 이성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에 실업계 34.6%, 인문계 65.6%로 답하고 있어, 이는 인문계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대학 진학이라는 입시 중압감 때문에 실업계 여학생들보다 이성친구를 사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보다 입시부담에서 오는 정신적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아 이성교제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성교제 대상에 대한 질문에 ‘대학생이상 성인’이라는 응답에 실업계 42.1% 인문계 16.5%로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응답에 실

Table 3. The difference of actual condition of their acquaintance of opposite sex by course

Items	Total N	Class	Vocational Course		Academic Course		Total %	x ²
			N	%	N	%		
Associate with other sex	691	Yes	178	65.4	144	34.3	46.6	x ² =74.2
		No	94	34.6	275	65.6	53.4	df=1 .000***
Intersexual partner	218	College student/ Adult	51	42.1	16	16.5	30.8	x ² =43.9
		High School student	70	57.9	81	83.5	69.2	df=1 .000***
Meeting experience	706	Yes	164	59.9	86	19.9	35.4	x ² =119
		No	110	40.1	346	80.1	64.4	df=1 .000***
Place for social intercourse	377	Home or Friend's Home	10	4.8	11	6.5	5.6	x ² =57.6 df=4 .000***
		Coffee shop	108	51.7	33	19.6	37.4	
		Singing room	11	5.3	10	6.0	5.6	
		Vacant lot	22	10.5	29	17.3	13.5	
		Others	58	27.7	82	50.0	37.9	

*p< .05 , **p< .01 , ***p< .001

업계 57.9%, 인문계 83.5%가 응답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인문계가 이성 친구의 대상이 주로 동질성이 높은 같은 문화권인 고등학생인데 반해서 실업계는 대학생이나 사회인이 42.1%로 나타나 학교 밖에서의 성인문화에 인문계 여학생들보다 실업계 여학생들이 보다 더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교제 장소와 관련시켜 봤을 때 잘못된 성인들의 성문화의 성적대상과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성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팅경험의 유무에 대해서 실업계 59.9%, 인문계 19.9%로 응답하여 미팅 문화가 인문계 여학생들보다는 실업계 여학생들이 더 높은 것은 입시 부담이 적은 데서 오는 시간적 여유와 학교에서의 활동시간이 자율학습이나 보충학습을 하고 있는 인문계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데서 기인하며, 앞의 문항과 연관시켜 볼 때 미팅대상이 성인일 확률이 높고 그에 따른 물질적인 유혹에 쉽게 몰입할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일년간 미팅횟수의 질문에는 계열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제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자기 집이나 친구 집'이 실업계 4.8%, 인문계 6.5%, '커피숍이 실업계 51.7%, 인문계 19.6%, '노래방'이 실업계 5.3%, 인문계 6.0% '비디오방'이 실업계 .5%, 인문계 .0%, '공터'가 실업계 10.5%, 인문계 17.3%, '자취방'이 실업계 4.8%, 인문계 .6%, 종교시설이나 만화방 같은 '기타'가 실업계 22.5%, 인문계에 48.2%로 나타났다. 실업계 여학생들이 교제장소로 커피숍을 주로 이용하는 것은 실업계 여학생들이 교제대상이 대학생이상 사회인 것과 관련하여, 학교 밖의 성인문화에 보다 많이 노출된 것에 연관성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교제 장소 자체가 비용이 많이 지拂되는 성인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경비 담당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성적인 중속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성교제 장소로 커피숍, 노래방 등 비교적 고비용이 지拂되는 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이 컴퓨터나 놀이공간이 매우 적고 다양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 건전한 오락문화나 놀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들만을 위한 오락, 놀이, 문화공간의 마련과 건전한 문화활동의 배려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4. 계열에 따른 음란물 접촉과 성 지식 통로
계열별 음란물 접촉과 성 지식 통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와 같이, 최근 1년 이내 음란 비디오 시청한 경험은 1-3회가 실업계 46.4%, 인문계 25.9%, 4-6회가 실업계 6.4%, 인문계 3.8%, 7-10회가 실업계 0.8%, 인문계 1.2%, 10회 이상이 실업계가 3.4%, 인문계 4.3%, 없다고 실업계 43.0%, 인문계 64.8%로 나타나 실업계가 음란비디오에 더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계열에 유의미한 차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상습적으로 음란 비디오를 시청하는 것은 인문계가 더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음란 비디오를 본 경우가 전체적으로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음란 비디오가 성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소수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청소년의 성문화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성적 백치로 행동하지만 어른들의 시선을 피해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성적호기심을 충족하고 이것이 자칫 성적 방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미 많은 부분 기성세대의 음란비디오 문화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무조건 금기만 하는 방어적 교육이 아니라, 음란비디오상의 이미지와 실제 현실의 차이 및 문제점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매체 비평하기 등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성교육도 추동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음란비디오 시청 장소는 자기 집이 실업계 25.9%, 인문계 46.4%, 비디오방이 실업계 8.1%, 인문계 3.0%, 친구집이 실업계 43.2%, 인문계 23.2%, 만화가게가 실업계 1.1%, 인문계 0.6%, 자취방이 실업계 3.2%, 인문계 1.8%, 기타가 실업계 18.5%, 인문계 25.0%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비디오방이나 자취방보다는 자기 집이나 친구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부모들의 무관심과 부주의가 학생들이 음란비디오를 접촉하는데 거

Table 4. The contact of obscenity and the passages to knowledge about sex by course

Items	Total N	Class	Vocational Course		Academic Course		Total %	x ²
			N	%	N	%		
Experience for lewdness audio visuals (within 1 year)	682	1-3 times	123	46.4	108	25.9	33.9	x ² =36.1 df=2 .000***
		4-10 times	28	10.6	39	9.3	9.8	
		None	114	43.0	270	64.8	56.3	
Audio visual place for lewdness	353	Home	48	25.9	78	46.4	35.7	x ² =27.7 df=4 .000***
		Video shop	15	8.1	5	3.0	5.7	
		Friends home	80	43.2	39	23.2	33.7	
		Cooking room for oneself	6	3.2	3	1.8	2.5	
		Others	38	20.7	44	26.2	23.1	
Route for sex knowledge	669	Newspaper, Novel, Magazine, Comic book	62	23.4	114	28.2	26.3	x ² =32.5 df=4 .000***
		TV	91	34.3	118	29.2	31.2	
		Textbooks	6	2.3	40	9.9	6.9	
		Video / Movie	73	27.5	60	14.9	19.9	
		Computer internet	33	12.5	72	17.8	15.7	
Talking partner for sex	656	Friends	231	87.2	279	71.4	77.7	x ² =25.6 df=4 .000***
		Parents	15	5.7	61	15.6	11.6	
		Seniors	4	1.5	6	1.5	1.5	
		Teachers	4	1.5	6	1.5	1.5	
		Computer communication	11	4.3	39	10.0	7.7	

*p< .05 , **p< .01 , ***p< .001

의 개입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성지식통로를 살펴본 결과 신문·소설·잡지·만화가 실업계 23.4%, 인문계 28.2%, TV가 실업계 34.3%, 인문계 29.2%, 교과서가 실업계 2.3%, 인문계 9.9%, 비디오·영화가 실업계 27.5%, 인문계 14.9%, 컴퓨터 인터넷이 실업계 12.5%, 인문계 17.8%로 응답하였다. 고등학생들이 선정적인 소설이나 잡지, 비디오, TV, 영화에서 무분별한 성 지식을 얻는 통로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실업계 학생들이 비디오나 영화를 보다 많이 접촉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성인용 매체, 대중매체 등에서 왜곡된 성지식을 얻게 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양해경(1996)의 주장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성에 대한 대화 상대는 친구가 실업계 87.2%, 인문계 71.4%, 부모님이 실업계 5.7%, 인문계 15.6%, 선배가 실업계, 인문계 모두 1.5%, 교사가 실업계, 인문계 모두 1.5%, 컴퓨터 통신이 실업계 4.3%, 인문계 10.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친구들이 77.7%를 차지하고 부모도 11.6%를 차지하고 있어 인문계가 실업계보

다 부모를 대화상대로 하는 비율이 2.5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동질적인 또래 집단을 통해서 상호간에 서로 상대가 자기의 가장 좋은 이해자이며 협력자라는 것을 믿고(김성애, 1996) 자신의 개인적인 비밀을 털어놓으며 이해와 만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교사와 성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현재 학생들의 성 문제 해결에 교사들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의상소통의 부재현상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극복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5. 계열에 따른 성교육 차이

계열에 따른 성교육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성 문제에 대해 '신체구조와 신체변화'가 실업계 7.8%, 인문계 21.2%, '성 충동'이 실업계 11.6%, 인문계 6.9%, '자위행위'가 실업계 1.6%, 인문계 1.7%, '월경'이 실업계 12.8%, 인문계 9.1%, '이성교제'가 실업계 44.2%, 인문계 31.9%, '기타'가 실업계 22.1%, 인문계 29.1%로 응답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Table 5. The difference of sexuality education by course

Items	Total N	Class	Vocational Course		Academic Course		Total %	x ²
			N	%	N	%		
Present sex problem	663	Body structure / change	20	7.8	86	21.2	16.0	x ² =35.8 df=4 .000***
		Sex impulse	30	11.6	28	6.9	8.7	
		Menstruation	33	12.8	37	9.1	10.6	
		Associate with other sex	114	44.2	129	31.9	36.7	
		Others	61	23.6	125	30.9	28	
Teacher for sexuality education	665	Teacher of home management	26	9.7	75	17.7	14.6	x ² =17.9 df=3 .006**
		Nurse teacher	37	13.7	72	17.0	15.7	
		Specialist for sexuality education	192	71.1	248	58.5	63.4	
		Counselor / Class teacher	15	5.6	29	6.8	6.3	
Time for sexuality education in school presently	696	Concerned class	103	38.3	140	32.8	34.9	x ² =18.7 df=3 .002**
		Special or class meeting	28	10.4	56	13.1	12.1	
		Special hours except regular class	81	30.1	155	36.3	33.9	
		None	57	21.2	76	17.8	19.2	
Satisfaction level for sexuality education in school	706	Satisfactory	18	6.7	36	8.3	7.6	x ² =10.3 df=3 .036*
		So so	126	46.8	237	54.2	51.4	
		Insufficient a little	45	16.7	72	16.5	16.6	
		Very insufficient	80	29.7	92	21.1	24.4	
Contents for sexuality education	439	Good association with other sex	58	38.4	111	38.5	38.5	x ² =25.7 df=3 .012*
		Good sex judgement / Sex mind	33	21.8	61	21.2	21.5	
		Reproductive physiology	34	22.5	45	15.6	18.0	
		Veneral disease, Sex impulse, Masturbation, Sex before marriage, Sex violence, Pregnancy, Contraceptive method	26	17.3	71	24.5	21.0	

*p< .05 , **p< .01 , ***p< .001

있다. 실업계 여자고등학생들이 이성교제와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 충동 등 이성교제 상대자와 관련이 있는 문제에 고민이 많은 반면에 인문계 여자고등학생들은 이성교제의 경험이나 관심이 실업계여자고등학생들 보다 적어 자신의 신체구조와 신체변화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 계열에 따라 성교육의 요구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따라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싶은 교사를 조사한 결과 ‘가정선생님’이 실업계 9.7%, 인문계 17.7%, ‘양호선생님’이 실업계 13.7%, 인문계 17.0%, ‘성교육 전문 강사’가 실업계 71.1%, 인문계 58.5%, ‘상담선생님’이 실업계 2.6%, 인문계 5.6%, ‘담임선생님’이 실업계 3.0%, 인문계 1.6%로 답하여 전체적으로 63.4%인 인문계와 실업계 모두 실질적이고 현실성에 입각한 교육이 기대되는 성교육 전문 강사에게 성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인문계 여학생들은 실업계 여학생들과 달리 학교 교사를 더 선호하고 있어서 교

사들의 성교육연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성교육 전문 강사에 의뢰한 성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의 양호교사와 가정교사 등 성교육과 관련이 있는 교과 교사들을 성교육 전문과정의 연수과정을 통한 재교육으로 그들이 성교육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인문계 여학생들이 학교교사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성 관심사가 아직은 실업계 여학생들보다는 교과서적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열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고 있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관련 시간’이 실업계 38.3%, 인문계 32.8%, ‘특활 및 학급회의 시간’이 실업계 10.4%, 인문계 13.1%, ‘수업이외의 정한 시간’이 실업계 30.1%, 인문계 34.4%, ‘학급조회 및 종례’가 실업계 .0%, 인문계 1.9%, ‘한적 없음’이 실업계 21.2%, 인문계 17.8% 답하여 실업

계여학생들이 인문계 여학생들보다 성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취업위주의 학교활동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성교육이 '관련 교과 이외의 시간' 응답이 65.1%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현재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 다시 말하면, 교과 담당교사의 피치 못할 상황으로 교과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학교 행사 등 교과시간에 공백이 생길 경우 성교육 자료인 비디오 등을 주로 이용하는 소극적이고 무계획적인 성교육의 실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계열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는 '아주 만족'이 실업계 4%, 인문계 2.1%, '만족'이 실업계 6.3%, 인문계 6.2%, '보통'이 실업계 46.8%, 인문계 54.2%, '조금 부족'이 실업계 16.7%, 인문계 16.5%, '매우 부족'이 실업계 29.7%, 인문계 21.1%로 응답하여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학교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성교육에 92.4%가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대다수의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계열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성교육 내용에 대한 결과는 '올바른 이성교제'가 실업계 38.4%, 인문계 38.5%, '올바른 성 가치관'이 실업계 21.8%, 인문계 21.2%, '여성과 남성의 생식생리'가 실업계 22.5%, 인문계 15.6%, '원치 않는 임신, 성폭력, 성병, 성 충동, 자위행위, 혼전 성 관계, 피임방법'이 실업계 17.3%, 인문계 24.5%로 응답하였다. '올바른 이성교제' 및 '성 가치관'에 대해서는 계열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으나 '남성과 여성의 생식생리'에 있어서는 실업계 여학생들이 인문계 여학생들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 성폭력, 성병, 성 충동, 자위행위, 혼전 성 관계, 피임방법' 등 학생들이 직면하는 성문제와 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교육은 실업계 여학생들이 인문계 여학생들보다 더 부족한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졸업 후 바로 사회진출로 이어지는 실업계 여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이고 당면한 성문제에 대한 성교육 내용이 더욱 강화되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성교육내용이 '올바른 이성교제나 성 가치관' 등 전통적이며 원론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부정적이고 방종적인 성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에는 매우 미흡한 현상에 머물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이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계열에 따라 성의식, 이성교제 실태, 성지식 통로, 현재 받고 있는 성교육 내용이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학교 성교육이 신체적 성 위주의 이론중심이었으며, 성폭력, 임신, 피임 등 현실대처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은 상당히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준화하고 획일적인 교육내용과 방식으로는 올바른 성교육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앞으로 성교육이 청소년 스스로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로리주희, 2000)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성적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가치관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과 가장 긴밀한 상호 작용을 하며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는 학생들의 성 의식이나 성 가치관 형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현직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연수가 필수적으로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격연수 및 일반 연수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정규 교과 과정에 여성학 및 성교육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은 사회변화를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의 내용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천편일률적인 방식

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을 금기시하거나 순결 지상주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계열 및 지역에 따라 교육대상에 차별화를 둔 성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히 개발·적용되어야 하겠다.

셋째, 교육현장에서는 이성교제 자체를 일부 문제학생들의 성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경향이 강한데, 이성교제 자체는 청소년의 발달과업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므로 이성을 성적 파트너가 아닌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친구관계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전인교육 차원에서 건전한 이성교제 및 또래 놀이문화 형성에 제도적인 교육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정보사회에서 각종 유해한 성 정보의 범람으로 인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혼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음란물, 성폭력, 미혼부모, 성병 등 부정적인 성문제 발생에 여자 청소년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고 남자 청소년의 책임을 회피시키는 등 양성차별적인 성교육에서 벗어나 양성공동책임을 인식케 하는 비판적인 사고의 성교육이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학교 성교육의 주된 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불과 수 년 안에 결혼 진입연령에 해당되므로, 사회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혼전동거, 미혼부모, 높은 이혼율, 가족 학대 등의 확산으로 비롯되고 있는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건강한 결혼 가치관을 확립케 하여 온전한 부부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기관에서 가정과 교육을 통한 제도적인 결혼 준비교육을 강화 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접근하지 못한 영역이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을 고등학교 여학생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성교육은 남녀 양성 모두에 해당되므로 고등학교 남학생으로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에 따른 고등학교 및 중

학교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조사 대상 지역도 전라남도 일부지역이라는 이 연구의 한계를 벗어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진배(1997). 고등학교 학생의 성 지식과 성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1). 함께 풀어나가는 성이야기-고등학교-, 성교육 교사용지도지침서, 교육인적자원부.
- 김성애(1996). 청소년의 성문화의 현실, 서울, 학지사.
- 김현미(1997). 여성주의 성교육을 위한 모색, 한국여성학 13(2), 123-157.
- 로리주희(2000). 남학생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가꾸기 토론회, 서울, (사)한국여성전화연합 1-25.
- 문희(2001). 청소년의 성인지도 및 성폭력에 대한 통념 수용도에 대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를 위한 토론회」, 전남, 전남성폭력상담소, 19-28.
- 양해경(1996). 성 교육의 실태 분석 및 새로운 제안, 「학교 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10-43
- 오영재, 백경숙, 조선화(2002). 청소년복지론, 양지, 107-124.
- 윤가현(2000).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147-149.
- 이명선(1997). 한국여성학에서 성연구의 경향과 쟁점, 한국여성학회 제 14차 추계학술대회 발표 초록 319-337.
- 이성희·한은주(1998). 청소년의 성문화 실태에 관한 연구-전북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72-92.
- 이채희(1999). 중학생을 위한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마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익산성폭력상담소(2000). 청소년의 음란 대중매체 접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익산시를 중심으로, 익산성폭력상담소.
- 장(윤)필화(1999). 「여성·몸·성」, 서울, 또 하나의 문화, 19-25.
- 정혜순(2000). 중학교 성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재명(1981). 여자 중학생을 위한 성교육 내용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혜정(1998). 청소년 성문화: 성적 주체로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4(1), 7-40.
- 조한혜정(1999). 청소년의 인권과 시민권을 다시 생각함, 영산원불교대학교학술총서 제 7집 「청소년이데아Ⅲ」, 소태산사상연구원, 전남, 영산원

불교대학 출판국 7-33.
차선희(1999). 남녀 대학생의 성문화와 성 의식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생활통계연보(2003). 청소년생활통계연보, 광
주시사회조사연구소 218-293.
황은자(1993). 성교육 지침서 분석을 통해 본 성 이증
성, 한국여성학 제9집, 147-194.